

일제강점기 구포와
『龜浦郷土誌』의 사료적 가치

차 철 욱
(밀양대학교 강사)

차 례

- I. 머리말
- II. 일제강점기 龜浦의
지리·역사적 의의
- III. 『龜浦郷土誌』의 성격과 의의
 1. 구성 및 내용
 2. 주요 내용의 자료적 가치
- IV. 맺음말

I. 머리말

구포는 낙동강 하구의 중요 포구로서 경상도 내륙과의 물자유통에서 출발지이자 종착지였다. 구포는 전근대뿐만 아니라 근현대 부산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구포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 하지만 구포는 인근의 동래, 김해, 양산의 대도시에 부속된 자그마한 마을에 불과해 구포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은 많이 남아있다. 다행히 최근 일제강점기 구포지역 사료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²⁾ 구포청년회와 구포은행 관련 자료의 발굴은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일제강점기 구포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³⁾ 이번 자료발굴 또한 일제강점기 구포를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필자는 『龜浦郷土誌』(구포초등학교합동편찬, 소화 8년)를 발굴하였다. 발간처는 구포초등학교합동편찬으로 되어 있고, 발행시기는 1933년이다. 이 자료는 향토지이기 때문에 1933년 현재 구포의 현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그동안 구포관련 자료수집과 연구가 특정주제 및 조선인 관련 내용이었던 반면 이 자료는 일본인 중심의 서술이어서 일제강점기 구포에 살던 일본인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에 살던 일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자료는 구포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사회활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할 것이다.

-
- 1) 부산복구 낙동문화원에서는 『낙동강 사람들』,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등에 지역사 관련 연구논문과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구포의 역사를 발굴·대중화시키고 있다.
 - 2) 정순영 외, 『구포청년회 회록』, 부산정보대 민속박물관, 1998.
차철욱, 김동철, 「근대 부산지역 금융관련 자료와 그 성격」 『항도부산』18, 2002.
 - 3) 이들 자료를 토대로 차철욱,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8, 2002이 발표될 수 있었다.

II. 일제강점기 龜浦의 지리·역사적 의의

구포는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낙동강이 지나는 역사성과 더불어 역사적 위상이 바뀌어졌다. 특히 1876년 개항 후 낙동강을 이용한 부산과 경상도 내륙지방의 연결점으로써 기능하였다. 개항은 일제의 공산품과 조선의 미곡을 교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두 상품의 교역장소는 부산항이었다. 따라서 경상도 내륙에서 수집된 미곡은 낙동강 수운을 이용해 구포에서 육로로 부산항으로 보내졌고,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의 공산품은 구포를 통해 내륙으로 보내졌다.⁴⁾ 구포가 지나는 상품 유통과정에서의 위치는 한일무역과 관계가 많았다. 그런데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자 경상북도 내륙의 물자는 왜관, 대구, 삼량진 등 경부선 역과 수운이 교차하는 지점의 도시에 모여 곧바로 기차를 이용해 부산역으로 옮겨졌다. 반면 구포로 모이는 물자는 인근의 김해와 양산 지방의 곡물로 한정되었다.⁵⁾ 철도개통 후 구포의 역할이 약간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근 지역 물자 유통의 중심지였음은 분명했다.

이처럼 개항과 동시에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구포 사람들은 근대화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 일본 상인들의 수탈에 대한 저항 의식을 키워나갔다. 우선 민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907년과 1908년에 각각 구명학교와 화명학교가 설립되었다. 특히 구명학교의 1회 졸업생이었던 윤현진은 임시정부 재무차장을 지낼 정도로 이 때의 민족교육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1910년을 전후해 백산 안희제 선생이 구명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사실은 이들 학교가 단순한 근대교육의 학습뿐만 아니라 민족의식과 저항정신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포에는 상품 유통지로서 많은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었

4) 일본영사관, 「在釜山日本領事館內 慶尙道事情」 『항도부산』 제7호, 1969, 154쪽.

5) 新納豊, 「鐵道開通 이후의 洛東江 船運」 『韓國近代經濟史研究의 成果』, 형설출판사, 1989, 201~203쪽.

는데, 그들은 1905년 일제가 화폐재정개혁을 단행하자 상업자본 부족에 허덕였다. 이때 조선인 상인들이 상업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9년 구포저축주식회사를 발족하였다. 이 회사는 구포의 윤상은과 장우석이 주동이 되어 만들어졌다. 1912년 부산의 상인들을 대폭 받아들여 구포은행으로 발전하였다. 이 은행은 지방 최초의 민족은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 빈약한 조선상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는 크다.

이처럼 구포는 교육과 경제 등 근대화에서 아주 발빠르게 적응하였다. 이러한 대응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3월 29일 장사꾼 1,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1918년 창립한 구포기로서와 1922년 창립한 구포청년회는 이 지역의 근대화와 민족의식 함양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구포는 유통의 중심지로 민족자본의 성장을 자극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분위기는 사회운동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구포 근대사를 서술할 수 있는 자료가 발굴되지 않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였다.

한편, 구포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해서 개항직후부터 일본인들의 진출도 증가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선농사주식회사의 설립이다. 이 회사는 1907년 설립되었고, 본점은 동래군 구포에 위치하고 있다. 자본금 10만원이고, 목적은 농사와 대금업, 결산기는 년 1회로 3월이며 배당률은 년 1할로 높았다. 주식 수는 총 2천주에, 주주 수는 119명이다. 이들 모두는 일본 長野縣 大島郡 사람들이고, 대도은행이 주요 자금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1907년 日韓商業興信所가 발행한 『한국실업가명감』에는 주요 업종이 농업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영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부업이 주 영업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회사가 구포에 본점을 두고 활동한 것은 이 지역의 상인, 지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과 농업경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

6) 朝鮮農事株式會社, 『第八期營業報告』, 1914

포는 개항기부터 일본 자본의 투자처로 인식되었다.

그 외에도 개항기 구포에는 조선인을 상대로 한 잡화상이나, 미국 수집상, 부동산업자들이 진출하였다.

Ⅲ. 『龜浦鄉土誌』의 성격과 의의

1. 구성 및 내용

이 자료는 총 90쪽의 적지않은 분량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목 차

1. 향토연혁
 - 1) 향토지도
 - 2) 향토연혁
 - 3) 고사 고문서
2. 향토의 자연지리방면
 - 1) 지세
 - 2) 기후
 - 3) 天山의 분포
 - 4) 토양
3. 향토의 문화방면
 - 1) 향토의 행정
 - 2) 주민호구
 - 3) 교육과 사회사업
 - 4) 사원과 종교
 - 5) 체육위생
 - 6) 경찰경비
 - 7) 산업과 경제
 - 8) 교통
 - 9) 관공서
4. 향토의 특수방면
 - 1) 향토의 특수한 사업
 - 2) 풍속 습관 구비 전설
 - 3) 사상 民性
 - 4) 인물
 - 5) 명승사적
5. 향토의 총괄
 - 1) 향토의 특질에 대한 고찰
 - 2) 향토의 진흥책에 대한 고찰

이 자료의 구성은 연혁, 자연지리, 문화, 풍속, 인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토연혁은 향토의 지도와 연혁을 정리한 향토지 도입 부분이다. 향토의 자연지리방면에서는 지세, 기후, 天山의 분포, 토양을 다소 상세하게 정리하여 구포의 자연적인 조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향토의 문화방면에서는 행정, 주민호구, 교육과 사회사업, 사원과 종교, 체육위생, 경찰경비, 산업과 경제, 교통, 관공서 등을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사회사업에서 정리한 성인교육은 당시 구포의 사회단체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일본인측 사회단체로 구포청년단, 구포여자청년회, 구포불교부인회, 구포부인회, 조선인측 사회단체로 동래청년동맹구포지부 등을 열거했다. 그리고 교화단체로 일본인측 단체로 수양단구포지부, 조선인측 단체로 龜浦斯人會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이들 단체의 활동과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향토의 특수방면에서는 구포의 특수한 사업, 풍속, 습관, 구비전설, 사상 民性, 인물, 명승사적 등을 정리하였는데, 이 가운데 인물은 개별인물의 업적을 이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일본인과 조선인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정리된 조선인은 윤상은, 장우석, 강신호, 김시환, 서찬규, 신영조, 윤영은, 장익원, 장진원 등이다.⁷⁾ 이들은 구포의 유지들이다. 물론 일본인들 또한 구포에서 일본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들이 동시에 향토지에 이름이 열거될 수 있다는 것은 양 민족 간의 갈등보다 협조가 어느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향토의 총괄에서는 향토의 특질과 진흥책에 대한 향토지 필자들의 고민을 정리하고 있다. 즉 구포가 지니는 농업, 상업 등 경제진흥, 교육진흥 등의 발전 전망을 계획하였다.

7) 이들은 대부분 1909년 설립되는 구포저축주식회사의 주주로 참석하고 있어 구포지역 유지였음을 알 수 있다(차철욱, 김동철, 앞의 글, 337쪽).

2. 주요 내용의 자료적 가치에 대한 검토

1) 행정

① 면사무소

면사무소의 연혁, 현상(직원수, 경비), 역대 면장, 면리원 수와 대우, 각종 의원 해설, 주요한 규약 규칙 등을 열거하였다. 면사무소 운영경비는 약 4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급여, 토목, 助業, 사무소운영비, 위생, 警備 등의 항목별 계획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 면사무소 운영경비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역대면장 金舜直 尹鍾儀 申永祚 許攢 尹永召(台) 崔敬鵬 盧性穆 張翼遠(현 면장)을 임명된 순서대로 열거해 두었다. 그외 임기 4년의 면협의회원 10명을 선거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주요한 면사무소 규약을 정리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면의 세입과 관련하여 세금 징수 관련 내용과 면 자체 사업과 관련된 지출 항목 규정을 정리하였다. 규정은 제목만 있고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각종 조합

명 칭	관 리 자	총인 원수	기금		설립년월일
大里勸農共濟組合	補尊吏員 윤상은	30	600	250	1929.12.25.
南山亭勸農共濟組合	보존리원 김중권	30	600	100	1930.12.25.
栗里勸農共濟組合	보존리원 황성오	30	600	-	1931.12.25.
龜浦面叭子生産組合	조합장 林胤來	220	1,100	330	1930.11.20.
龜浦面小農興産組合	조합장 장익원	40	520	-	1930.12.10.
龜浦面一錢貯蓄組合	조합장 장익원	177	-	235	1931. 7.10.

각종 조합은 대부분 농업관련 조합이고, 저축관련조합이 한 개 있다. 대부분 1929년 이후 설립된 것이다. 관리자는 모두 조선인이었고, 특히 윤상은과 면장인 장익원이 조합장을 맡고 있다. 이 외 구포에 거주하던 일본인회가 바뀌어서 재조직된 구포학교조합을 소개하고 있다.

③ 주민호수

주민의 증감 원인을 남선제지회사의 운영과 연관지위 설명하고 있다. 즉 이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호수가 늘었으나, 1920년대 중반이후 이 회사가 폐쇄되면서 인구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다가 1927년 낙동강 개수공사와 1931년 구포다리 공사로 노동력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 구포의 주민 가운데 조선인은 1,476호, 일본인 135호로⁸⁾ 합계 1,611호였다. 이 중 구포리에 790호가 거주하여 면 가운데 가장 많다. 그리고 일본인은 구포리에만 133호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직업에서도 조선인은 농업이 대부분이고 구포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상업 종사자도 많았다. 일본인은 대부분 상업, 공업, 관료가 대부분이었다.

2) 교육과 사회사업

교육은 보통교육, 특수교육, 사회교육으로 분류하였다. 보통교육에서는 사립구명학교와 화명학교를 병합하여 구포공립보통학교를 인가받은 경위와 규모, 현황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소학교의 설립경위를 정리하였다. 특수교육은 서당교육과 사설학술강습회의 현황과 개요를 정리하였다.

8) 1915년 현재 구포에 거주했던 일본인은 116호, 4백여명이었다(경상남도, 『경상남도안내』, 1915년, 135쪽). 그런데 1933년 현재 135호라면 18년 동안 20여호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위 자료에서 언급하는 1920년대 중반이후 구포경제의 침체와 관련있음을 증명한다.

사회교육으로는 성인교육과 교회단체를 정리하였는데, 성인교육으로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각각 운영하는 청년단체를 주로 취급하였다. 일본인 청년단체는 구포청년단, 구포여자청년회, 구포불교부인회, 애국부인회 구포지부, 구포부인회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933년 현재 구포지역 일본인 청년단체

명 칭	창 립	단원 자격	목적	사업 내용	회원
구 포 청 년 단	1931년 3월 23일	15세~ 30세의 청년	친목 도모	강습회, 강연회, 체육대회, 견학 등	16명
구 포 여 자 청 년 회	1931년 5월 16일	15세 이상 여자	친목 도모	강습회, 강연회, 체육대회, 견학 등	9명
구 포 불 교 부 인 회					35명
애국부인회구포지부					12명
구 포 부 인 회	1928년 10월	일본인 부인	친목 도모		46명

대부분 청년단체는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했으며, 이에 걸맞는 활동을 벌였다. 이 가운데 애국부인회는 일본을 위한 전투에서 발생한 전사자와 준전사자의 유족 및 폐병(廢兵)을 위한 구호 사업 단체로서, 일본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회원은 부인으로 하였는데 총재 및 명예회원은 일본의 황족을 추대하고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을 두었다. 본회는 1901년경 일본 동경(東京)에서 발족된 것으로 추정되며 1905년 3월 22일 정식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득하였다.⁹⁾ 그리하여 일제는 각 지역에 애국부인회지부를 설치하였다.

9)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도서해제』제5집, 2002, 185쪽.

조선인들이 구성한 청년단체로 동래청년동맹구포지부를 들고 있다. 이 자료에서 동래청년동맹구포지부는 1926년 3월 17일 창립되었으며, 목적은 문맹퇴치이며, 회원은 50명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립일인 1926년 3월 17일은 구포지부 창립일이 아니다. 동래청년동맹구포지부는 1928년 8월 12일 구포청년회가 조선청년총동맹의 강령에 찬동하여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출발하였다.¹⁰⁾ 구포청년회는 1922년 2월 5일 창립하여 1928년 8월 해체되었다.¹¹⁾ 구포청년회는 1925년 11월 1일 동래지역의 청년회가 동래청년연맹을 창립할 때 참여하였으나, 청년회를 해체하지 않았다.¹²⁾ 동래청년연맹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하였고, 사상단체 간의 세력다툼과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으로 활동이 원만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26년 6·10만세 이후 신간회의 탄생과 새로운 운동노선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순무산계급청년” 중심의 활동에서 민족주의 청년을 비롯한 광범한 계층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러한 사상적인 변화과정에서 1928년 2월 26일 동래청년동맹이 탄생하였다. 5월부터 8월 사이에 사하지부, 기장지부, 좌천지부, 여고지부, 동래지부, 구포지부가 결성되었다. 동래청년동맹의 활동은 신간회지지, 문맹퇴치, 조혼폐지, 기성청년단체 해체, 노동여자야학 운영, 노농단체 진흥과 농촌야학 및 농민조합 축성, 국제청년데이기념 등의 문제를 주요 사업으로 하였다.¹³⁾ 이 과정에서 결성된 동래청년동맹 구포지부는 사회계몽단체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교회단체로서 일본인측의 修養團龜浦支部와 조선인측의 龜浦斯人會를 들고 있다. 전자는 인격수양을 목표로 하면서 30명

10) 『동아일보』 1928. 8. 25.

11) 백이성,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2002, 31쪽.

12) 구포청년회는 해체되기 이전인 1928년 4월 정기총회에서 위원개선, 연령제한 연장, 각종 행사계획 등을 결의하였다(『동아일보』 1928. 4. 6).

13) 김승, 「한말·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6, 2000, 97~102쪽.

의 단원을 보유하고 있다. 후자는 1924년 3월 15일 설립된 것으로 친목도모와 사회사업을 목표로 하였다. 단원은 50명으로 女子女學會를 경영하고 있다.¹⁴⁾

3) 경찰경비

구포다리의 준공, 부산 마산선의 개통예정, 낙동강 호안공사 준공 등으로 화물이 낙동강 유역에서 구포로 집중하면서, 교통량과 통행인이 증가하자 경비시설의 확충이 절실하였다. 3, 8 장날에는 더욱더 경찰기구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주재소가 1909년 구포에 처음 설치되었을 때 순사 1명이었던데 비해 1933년 현재 부장 1명, 순사 4명으로 증가하였다. 소방대는 1914년 조직되었다.

그 외 구포의 지리적 특성에 알맞는 경비대가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철도경비와 홍수특경비, 夜警을 소개하고 있다. 철도경비는 군대수송시, 大官통과시, 경찰, 재향군인, 소방대가 철도 임시경비를 조직하였다. 홍수특경비는 낙동강 범람을 대비하여 경찰, 재향군인, 소방대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夜警은 일본인, 조선인 합동으로 신구 연말 각 20일간 돌아가면서 경비임무를 맡았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구포지역의 경비활동의 계기와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경비에는 조선인도 소수 참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본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경찰 경비를 주로 일본인이 담당했다는 의미에서 순수한 민간기구라를 일본인들의 자위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게 한다.

4) 산업과 경제

구포의 산업 일반에 대해 개관하고 있다. 구포의 지리적인 위치로 봐서 농업이 중심이고, 목축이나 수산이 그 뒤를 잇는 정도이

14) 구포사인회는 1929년 10월 31일 구포여자청년회가 주최한 유치원 개원을 후원하였다(『동아일보』 1929. 11. 5).

며, 임업이나 공업은 유치한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직업별 호구수와 생산액을 정리하고 있다. 전체 1,645호(2,258세대) 가운데 농업과 목축업이 759호(821세대), 상업과 교통업 384호(501세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구포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이 농업임을 감안할 때 생산액에서도 米와 麥이 가장 많다. 총 생산액 15,606엔 가운데 米는 124,987엔, 麥은 23,347엔으로 최고의 생산액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금곡리와 금성리의 곡자(누룩) 제조업이 아주 번성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생산액이 약 20만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기록한 총 생산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양자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다.

납세부분에서는 합세 30엔 이상 납입자 30호, 합세 5엔 이상 납입자 670호, 합세 1엔 이하가 1,000호로 가장 많다. 면세받은 극빈자도 100호나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부업인데, 가마니 짜는 일과 새끼 꼬는 기계를 한 두 대씩 가정에 두고 부업하는 호수와 닭과 돼지를 키우는 가정이 가장 많다. 새끼는 가마니 짜는데 필요하고 가마니는 구포의 물자유통 기능과 관련시키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다. 닭과 돼지는 전통적인 부업 종목이었다.

1933년 현재 구포지역의 부업 현황

구 분	시 설	생 산	호 수
叭織機	215대	81100개	214호
繩機械	119대	65400관	119호
鷄	1762羽		351호
豚	314頭		106호
羊	25頭		8호
蜂	13箱	채밀량 36근	6호
采	1町5段	掃立 7개 收藪量 4石	9호

구포의 이출입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구포의 생산품 뿐만 아니라 경유품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933년 현재 구포의 이출입품

구분	품명	액고	이출입처
이출	米	년 4백만엔	부산
	粳	년 6만엔	부산
	梨	년 50만엔	선내 각지, 내지, 만주, 지나, 서양
이입	수산물	년 1만4천엔	부산
	직물	년 2만5천엔	부산
	소채	년 1만 2천엔	낙동강 상류지방

주요 이출품은 米(도정된 것), 벼, 배이고, 이 물자들은 주로 부산으로 나가는데, 대일 수출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배이다. 배의 이출지역은 조선은 물론이고 일본, 만주, 중국, 서양까지 보내지고 있다. 米와 벼는 구포의 곡물상이 수집해서 부산의 상인에게로 넘겼으나, 배는 과실조합이 공동판매를 하였다. 원래 구포 배는 일본의 岡山縣으로 주로 수출되었는데, 1932년 三井物産 부산지점의 알선으로 해외 수출이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이입품은 수산물, 직물, 소채이다. 수산물과 직물은 부산에서 이입되고, 특히 직물의 이입은 부산의 대직물공장으로부터 이입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채는 낙동강 상류지방에서 주로 들어왔는데, 대저 방면의 야채 또한 구포에 많이 공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15) 『매일신보』 1932. 1. 21.

16) 『매일신보』 1912. 11. 9.

5) 금융상황

구포의 금융기관으로 금융조합, 경상합동은행, 예금만 가능한 우편소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금융조합은 농촌의 금융지원을 위해 1907년 최초로 설립되었다. 위 자료에 의하면 구포금융조합은 1921년 5월 11일 설립되었으며, 조합구역은 구포, 사상, 사하, 서면이었다가 1928년 10월 사하, 서면 두 개 면은 서면금융조합의 신설로 분리되었다. 금융조합은 철저히 조합원제를 토대로 했는데, 조합원에게 대부, 조합원의 예금이 주요 업무였다. 이 시기 구포금융조합 조합원이 관할 구역인 구포 사상 두 개 면 총 세대수 3,320호 가운데 1,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많은 농민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금융조합의 금리를 특별대부금리율, 보통대부금리율로 크게 구분하고 세부적인 내용별로 금리를 정리해 두었다. 그리고 예금이율에서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거치적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등의 금리를 각 기간별로 정리하였다.

경상합동은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구포에 경상합동은행이 있었던 것은 1928년 8월 종전의 경남은행 구포지점이 경상합동은행 구포지점으로 바뀐 때문이다. 원래 구포에는 1909년 윤상은, 장우석이 주도하여 구포저축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912년 회사령과 은행령의 영향으로 저축회사를 은행체제로 전환하여 구포은행으로 재출발하였다. 하지만 은행경영상 필요에서 1915년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서 은행 명칭을 경남은행으로 변경하고, 구포의 본점은 구포지점으로 격하되었다. 1920년대 초반 은행의 경영난과 총독부의 은행 간 통합 권유로 경남은행은 대구의 대구은행과 통합하였다. 그리하여 1928년 8월 경상합동은행으로 탈바꿈하고 대구은행 본점이 있던 대구에 본점을 두고, 부산의 경남은행 본점과 구포지점에 경상합동은행 지점을 두었다. 구포지점의 업무는 농업자금과 상공업 금융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위 자료에서는 은행의 위치, 설립, 연혁, 현상, 이용, 상황, 이율, 대부 등을 주로 정리하였다.

우편소의 금융기능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우편소 영업상황을 정리하였다. 우편저금과 지불, 우편어음지불과 정산의 회수, 금액을 정리하였다. 그런데 대체로 우편소 취급 구좌수와 금액이 큰 경우는 없다고 한다.

6) 관공서

구포에 사무소를 둔 관공서인 구포면사무소, 초량토목출장소, 구포역, 구포경찰주재소, 구포우편소, 곡물검사소구포출장소, 구포금융조합, 동래사방구포사무소 등의 연혁과 현황, 구포지역과의 관계 등을 정리하였다.

구 분	설 립 년월일	역 할	기 타
구포면사무소	1909년	구포면 행정	금성, 금곡, 화명, 덕천, 만덕, 구포 통괄
초량토목출장소	1927년	낙동강 제방 축조	일제는 이 공사를 공민구제의 목적도 있다고 선전
구포역	1903년	승객과 화물 수송	강과 가까워 해운으로 우송된 공사 재료를 양륙하기에 적당한 장소
구포경찰주재소	1909년	일본인 보호	1918년 구포변영회가 주체로 신축
구포우편소	1904년	우편, 전신, 전화, 저금업무	집배구역은 구포, 사상, 대저와 가락 일부
곡물검사소 구포출장소	1932년	총독부 직영의 곡물과 가마니 검사	곡물검사는 1915년부터 시작되어 곡물상조함이 검사를 하다가 1917년 경상남도 직영, 1932년 총독부 직영 으로 이관되었다.
구포금융조합	1921년	조합원의 금융지원	
동래사방 구포사무소	1932년	사방공사 공민구제	혜택받은 구포사람은 연인원 1만2천6백명

7) 구포의 특수사업

구포에서 진행된 대규모 사업 즉, 사방공사, 가교공사, 하천공사, 시구개정, 시장이전, 도로, 격리병사, 전기사업 등을 정리하였다.

① 사방공사

이 공사는 1932년 6월 25일 동래사방구포사무소를 설립한 이후, 6월 27일 공사를 시작해 1933년 3월 31일 준공할 예정이었다. 공사지역은 구포리 산으로 20,818陌이었다. 공사비는 7,897엔 정도였다.

구포와 관계-이 사업의 목적은 토사가 흐르는 것을 막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궁민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② 가교공사

가교공사는 부산 마산간 도로사정을 원활히 하여 경남 남부의 산업을 개발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1927년 4월 낙동강의 일천식 개수공사가 기공되자 가교공사가 가능해졌다. 가교공사는 鹿島組가 시공하였다. 가교공사는 1931년 9월 14일에 착공하여 1933년 3월 31일 준공하였다. 규모는 폭이 9미터, 길이가 1,060미터이며, 공사비는 290,300엔이었다. 재료는 관급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위 공사비에서 제외되었는데, 총 경비는 약 75만원이었다.

③ 하천공사

하천공사는 1927년 4월 착공해서 1934년 9월 준공예정이었다. 예산은 1,550만엔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 畝 18,250정보, 田 7,560정보가 확보될 것으로 계획하였다. 수익에서도 680여 만엔에서 1,170만엔으로 증가가 예상되었다. 그리고 매년 수해로 허비되었던 비용이 매년 평균 750만엔이었으나, 이 공사로 소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실제 낙동강 제방공사 과정에서 세 갈래로 나뉘어졌던 물줄기를 하나로 만들자 낙동강 하류의 피해

가 많았다.¹⁷⁾

④ 시구개정

구포는 도로, 하수 등의 공사가 불완전해 공사를 해야할 것이 많은데 그 중 도로의 신설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이때 계획된 도로는 우선 1932년 계획으로 시장에서 보통학교(2,000엔), 시장에서 경남은행(2,000엔), 2차 계획으로 시장에서 북쪽으로 관통선, 구포역전에서 덕천리까지 중부 관통선 등이었다.

⑤ 시장이전

종전의 구포시장이 설비가 없어 불편이 많았다. 그래서 1932년 예산으로 시장 이전계획을 세우고 현 시장 동쪽에 4,671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1만 2천 5백엔의 경비를 들여 시장가옥을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

⑥ 면내 도로망

구포-양산선, 수정부락-용당, 대천선(대천교-대천리), 만덕선(구포리-만덕리), 금성선(화명리-금성리)을 계획하였다.

⑦ 隔離病舍

약 2천엔을 투입해서 1929년 준공예정으로 덕천리에 부지를 선정하였다.

⑧ 瓦電出張所

1930년 3월 착공해 7월 설립되었다. 총공사비는 기계 기구류를 포함해 약 3만엔이었다. 종업원은 일본인 1명, 조선인 5명이다. 구포의 배전선로의 교체시설을 위한 것으로 부산 변전소에서 김해, 밀양, 마산, 진주 방면으로의 송전선의 중계변전소 역할과는 관계가 적다.

17) 廣瀨貞三, 「植民地期の治水事業と朝鮮社會-洛東江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37, 121~125쪽.

8) 구포의 인물

구포의 유지라 할 수 있는 조선인 일본인 18명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조선인들의 정치 사회활동은 그동안 우리측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었거나, 밝히기 꺼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의 대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름	정 치 활 동	사 회 활 동
윤상은	구포면협의원, 學校費評議員	경제활동, 온돌개신, 色衣着用 운동
川上夫人		구포부인회장
장우석		사립구명학교 설립(제1대 교장), 화명평야 제방축조
강신호		사립구명학교 설립(제2대 교장)
김시환		사립구명학교 설립
서찬규	구포공립보통학교 학부위원	사립구명학교 설립자
신영조	구포면장, 면협의원, 구포공립보통학교 학부위원	사립구명학교 설립자
윤영은	구포공립보통학교 학부위원, 학교비평의원	사립구명학교 교장, 구포청년회, 야학회
장익원	구포면장, 구포공립보통학교 학부위원, 학교비평의원	각종 산업조합 조직
小宮龜介	역관(러일전쟁), 제1기 관리자	구포소학교 설립, 미곡상
平田幸次郎	제2기 관리자	구포부인회 창설
正久孫一郎	제3기 관리자	한국농사주식회사 지배인으로 이주
小川徳長	제4기 관리자	조선제지회사 구포 지배인으로 이주
水上八藏	제7기 관리자	
山内春彦	1933년 현재 관리자, 구포학교조합평의원, 면협의원	재향군인구포분회 부장, 龜浦消防組頭
장진원	면협의원	구포금융조합장
高田長平		社寺의 사무에 헌신
三村順		구포청년회 간사, 구포소학교 동창회

IV. 맺음말

이상에서 일제강점기 구포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龜浦郷土誌』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향토지의 구성과 내용이 일반적인 지방지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특이하지는 않다. 하지만 구포는 일제강점기 물자유통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으나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面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 자료는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 자료가 1933년 현재의 구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포의 사회상을 총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의 행정과 사업, 사회단체와 주요 인물들의 활동과 그 내용을 통해 그동안 조선인들에만 가졌던 관심을 일본인과 그들의 활동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향토지는 가끔 역사적인 진실과 달리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기도 한다. 위 자료 또한 군데군데 오류를 보이는 곳도 있다. 이 자료 뿐만 아니라 구포의 역사를 방증할 수 있는 더 많은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